

동행세일...소비자엔 '득템' 중기에는 '보템'

광주신세계, 12% 매출 증가...패션마켓 이어 중소기업 특별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2~6일 해외명품대전·8일까지 속옷 할인전

전국 소비축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일 주일을 맞아 이 기간에 맞춰 세일을 진행하는 백화점 업계도 여름 손님 잡기에 나선다.

지난 30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이 점포 매출은 지난해 동행세일(6월26일-)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골프 상품을 포함한 의류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 상품 매출은 지난해 동행세일 때보다 64% 뛰었고, 여성(15%), 남성(14%), 스포츠(15%) 등도 증가했다.

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9% 증가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도 2% 올랐다.

광주신세계는 의류 협력업체와 벌인 '코리아 패션마켓' (6월25~7월1일)에 이어 '동행세일 2탄' 격인 '중소기업 특별전'을 마련했다.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특별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주관한다.

참여 업체는 빗고음공예협동조합과 세울라이프, 유앤미, 아이러브허브, ㈜고려한, 고려윌, 한성산업 등 16개 업체이다.

참가 기업들은 선글라스, 장신구, 보석, 지갑, 가방, 머플러 등과 경옥양갱, 생강원, 아채간장, 잼 등 식품류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는다. 기술력을 갖춘 생활용품도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100% 당첨되는 복권도 증정한다.

1등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 중소기업 우수상품(2명), 2등에는 2만원 상당 중소기업 우수상품(4명), 3등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부채(300명), 4등에는 행주·종이세제·지퍼백 중 1개(400명)가 주어진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에 도움이 되고 고자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중소기업 특별전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



광주신세계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일정에 맞춰 '코리아 패션마켓'과 '중소기업 특별전'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해외명품대전'을, 1~8일에는 일 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속옷 할인전 '와코루 대전'을 연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1일부터 7일까지 '캘빈클라인 패밀리대전'과 '와이컨셉 샌들 특집전'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에서는 1~7일 아놀드프라마 최종가전을 만날 수 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에서는 1~7일 아놀드프라마 최종가전을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해외 명품숍 확대 고급화 꾀한다

명품 매출 31% 증가 상품·매장 등 보강

해외 명품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고급화 전략을 굳혔다.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은 최근 명품 매장 '롯데탑스'가 세단장해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옮겨 문을 열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롯데탑스는 롯데백화점 구매 담당자가 직접 해외 명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매장이다.

지난 한 해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의 의류 매출은 25% 감소했지만, 해외 명품은 31% 증가했다.

이 같은 명품 성장세에 맞춰 월드컵점은 롯데탑스 상품을 크게 보강했다.

유럽 15개국 60여 개 프리미엄 홈데코 브랜드를 한데 모은 '탑스메종'의 상품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내놓는다.

이곳에서는 16개 브랜드의 스탠드 조명, 시계, 쿠션 등의 프리미엄 홈데코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월드컵점은 지난 4월 해외 명품 매장 면적을 약 40% 확대하면서 해외 명품 병행수입 매장인 '럭셔리메뉴'를 새롭게 열었다.

럭셔리메뉴에서는 30여 개 브랜드 해외 명품 이월상품을 약 15~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난 달 11일에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AK골프' 매장을 들여와 골프 상품도 강화했다. 국내외 20여 개 골프 브랜드 용품을 만날 수 있고 시타 공간도 조성했다.



유럽 15개국 60여 개 프리미엄 홈데코 브랜드를 한데 모은 '탑스메종'. <롯데쇼핑 제공>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맛있는 한식 먹고 30% 할인 받고~"

'2021 코리아 고메 워크' 개최 광주 8~21일 안심식당서 진행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 130여 개 한식당에서 대표메뉴를 선택하면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전국 5개 도시 130여 개 한식당이 참여하는 '2021 코리아 고메 워크' 행사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은 대표 메뉴를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은 서울·부산의 경우 1~14일, 광주·대구·대전은 8~21일이다.

할인 금액의 일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농협 하나로포인트로 지원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이 참여한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지키는 안심업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만 277개소 지정·운영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한식포털(hansi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리아 고메워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식업체가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상이 된 마스크...피부 건강 지키는 보습제품 인기

광주 이마트 보습제 17% 매출 ↑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29일까지 보습제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마스크팩은 8.7% 증가했고, 자외선 차단제 매출도 24.9%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마스크팩과 보습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부를 가꾸는 상품은 1000~2000원대에 마련할 수 있는 마스크팩부터 LED 조명으로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미용 가전까지 다양하다.

피부 건강을 지키고 위생도 유지하는 제품도 매출이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세안 용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9.8% 증가했고, 클렌징 티슈도 15.5% 늘었다.

바디스크럽제 매출은 33.7% 증가했으며, 바디클렌저는 23.8% 늘었다.

휴대용 손 세정제(21.5%)와 섬유탈취제(9.5%), 구강 위생용품(31.1%) 등도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H. 010-2928-0202

시세 9억, 부동산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상담문의. 010-3605-5000